

보도 일시	2022. 11. 29.(화) 09:00	배포 일시	2022. 11. 29.(화) 09: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장 오세용 (044-203-2049)
		담당자	주무관 김민영 (044-203-2052)

## 문체부, 농인밴드의 자작곡 뮤직비디오와 음원 제작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농밴져스'와 편견 없는 음악 소통 캠페인 전개 -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농인 밴드의 자작곡이 공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1월 29일(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대표 송영호) 소속 농인 밴드인 '농밴져스'와 함께 밴드의 자작곡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함께한 이번 작업은 '음악은 누구와도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 착안한 캠페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과 '장애인 프렌들리'라는 정책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농밴져스'는 음악에 열정을 가진 농인과 청인으로 구성된 밴드로서, 2015년 결성 이후 7년간 40여 명의 멤버가 참여했다. 세 번의 정기 공연을 비롯해 모두 열세 차례의 공연을 여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자작곡 '농밴져스'는 농인의 일상에 음악이 준 희망에 관한 메시지 담아

이번 문체부 대변인실과의 캠페인을 통해 뮤직비디오와 음원으로 제작된 밴드 농밴져스의 자작곡 '농밴져스'는 농인으로 살아온 일상에서 '음악'을 만난 뒤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뮤직비디오와 음원 제작 과정에는 농밴져스 멤버 7명이 참여해 각각 건반·드럼·바이올린·베이스·수어보컬·음성보컬·카혼\*을 담당했으며, 남아있는 청력과 악기의 진동 등을 활용해 음악 전문 강사의 손가락 신호에 박자를

맞춰가며 연습했다.

\* 카흔: 상자 모양의 타악기

## 캠페인 영상과 뮤직비디오는 블로그 등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 공개

문체부 대변인실은 ‘농밴저스’를 농인과 청인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로 제작했는데, 뮤직비디오에는 농밴저스의 연습 과정과 음원 녹음 현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정원에서 촬영한 합주 모습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11월 28일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에 공개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농밴저스’ 음원도 12월 중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뮤직비디오: <https://blog.naver.com/mcstkorea/222940564861>

이번 캠페인에 관해 농밴저스 밴드 구성원은 “누구나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문화, 그리고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농인,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콘텐츠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 소통팀은 문화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농밴저스’ 가사

따로 붙임 ‘농밴저스’ 활동 사진

짧은 한숨으로 시작된 평범한 아침 / 반복되는 일상과 보통의 하루  
무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 무더진 일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노래

이제 날아올라 우리 노래 따라 / 저 문을 열고 / 세상에 너를 보여 줘

이제 시작해 봐 겁낼 필요 없어 / 꿈꾸던 모습 바로 여기 있잖아 / 농밴

오~오~오~오

똑같은 답을 말하는 조각난 세상 / 매일 매일 부딪히는 불협화음  
그 틈을 파고드는 멜로디 / 무채색 세상이 신나는 무대 되는 마술쇼

이제 날아올라 우리 노래 따라 / 저 문을 열고 / 세상에 너를 보여 줘

이제 시작해 봐 겁낼 필요 없어 / 꿈꾸던 모습 바로 여기 있잖아 / 농밴

이제 날아올라 우리 노래 따라 / 저 문을 열고 / 세상에 너를 보여 줘

이제 시작해 봐 / 겁낼 필요 없어 / 꿈꾸던 모습 바로 여기 있잖아 / 농밴

오~오~오~오